

휴가철 무안공항 하루 이용객 고작 726명

국제선은 中·日 전세계 대부분

KTX 공항 경유 활성화 관건

여름휴가철 성수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하루 7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북적됨과 대조적이다.

전남도는 “항공노선이 적으니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전세기뿐만 아니라 정기노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무안공항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전남도와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월24일부터 이날까지 무안공항(국제선 기준) 도착 여객은 3084명, 출발 여객은 4176명으로 총 7260명이다. 하루 평균 726명이 이용한 셈이다.

운항 편수는 도착 29편, 출발 27편 등 총 56편이다. 하루 평균 5.6편이 무안공항을 이용한 것이다.

무안공항 국제선 노선은 일본, 중국 등 전세기가 대부분이다.

정기노선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 2편이 운항하던 것이 사드 문제로 올해 5월 이후 중국 동방항공 상하이 노선이 끊긴



지난달 31일 무안국제공항 내부 천장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이날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침수피해를 보는 등 한때 소동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상태다. 미주, 유럽 노선은 물론이고 국제선 중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노선도 거의 없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무안공항 이용객 수는 2015년 18만3796

명, 2016년 19만8251명이었다.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543명이 이용했다. 반면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 30일 20만455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기·저가항공 등 노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활용

국가공모사업 대비 용역 착수

도시재생전문가 TF팀 구성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지역 도심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해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에 나서서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공사 재생단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하고 뉴딜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자치구 준비사항에 대비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재생 유형별 17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 국가 공모사업에서 7개 분야 53개 사업 1419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

다. 이번 뉴딜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가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달 25일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도 착수했다.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국비 지원액이 최대 25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연말까지 최종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공모에 응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TF도 구성했다. 자치구 재생담당국장

과 중앙정부 유력인사를 추가로 영입해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 전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주민 주도로 도시와 마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도 9월에 개소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며 “꾸준히 준비한 만큼 올해 정부 공모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는 2일 ‘한빛원전 4호기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 한빛원전의 전면 가동 중단과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빛원전은 잦은 고장과 운전정지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도 없이 재가동하고 있어 도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확실한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빛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부실 시공 전면 조사, 조사내용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또 부실 시공으로 판명될 경우 관

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한빛원전 가동 중단 등을 정부와 원전 측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빛원전 가동 중지 및 폐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한빛 4호기 방호벽에서 콘크리트 미제출부 공극으로 인한 배면부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두께 기준 미달 부위 120개가 발견됐고 CLP(격납건물 내부철관) 뒷면 일부구간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공극으로 수분이 침투돼 배면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④ 의료로봇 클러스터 조성

전남대 마이크로 기술 연계

의료장비 개발 일자리 창출

2023년까지 3000억 들여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건립

마이크로 의료로봇의 경우 전남대가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 첨단산업캠퍼스에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가 준공돼 현재 활발하게 연구활동중이며, 광주시는 이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세계 최초 대장내시경로봇 개발(2001) 및 상용화(2005), 캡슐내시경 개발(2003) 및 상용화(2005), 세계 최초 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2010), 세계 최초 박테리아 나노로봇 개발(2013), 면역세포기반 마이크로로봇(2016)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수술 로봇제어기술’, ‘재활용 케이블로봇’, ‘장기치료용 미니로봇’, ‘세포조작용 로봇’, ‘뇌수술 로봇’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연구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천기술을 기업들에게 기술이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전남대 로봇연구소의 마이크로의료로봇 특허출원이 세계 1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다. 광주에는 2011년 전남대 임상지원센터, 2016년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2017년 헬스케어실증단지 등 장비·공간·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구개발(R&D) 및 제품화 과정에서 연관 산업 간 가치사슬로 이어주는 산업화 지원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세계 최초’ 기술과 상용화

노하우를 기업들에게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국정과제로 마이크로 의료로봇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신속하게 사업이 전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가 구상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5년간으로, 국비 1500억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3000억원이다. 클러스터의 위치는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0만㎡로 결정했다.

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선점 ▲높은 시장성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의료장비 개발 및 세계시장 수출 ▲마이크로·나노 의료로봇 분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국가 특산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및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 지원 등이 있다.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의료로봇 평가 센터, 생산지원 센터 등을 건립하고, 대학 및 국책 연구소 유치, 국내외 전임상 시험기관, 치유센터(병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 전용 산업단지는 기계산업과 의료산업이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소재, 초정밀 부품,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로봇 등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계산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의 목표로 글로벌 선도기업 10개사 육성 및 2028년 100억달러 매출 달성, 시장수요형 제품 상용화를 통한 취업발효와 3500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름철 재난 예방

광주소방안전본부 다음달까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까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화재, 침몰, 붕괴 등 여름철 재난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취약지역 관리 및 수방장비를 점검하고, 강과 하천 등 붕괴·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늘린다. 또 수중펌프·비상발전기 등 수방장

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동원자원과 비상연락망도 손본다.

특히 ‘위험대비 단계’가 되면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와 비상근무 실시로 피해 집중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재배치하게 된다.

이 밖에 폭우, 태풍 등의 위험단계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등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재설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판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위치!

최종호 원장